

동자승 '실종아동찾기' 나서

내원정사 '자비의 탁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단기출가한 동자승들이 실종아동을 찾는 자비의 탁발에 나섰다.

내원정사(주지 정원) 유치원생 단기출가에 참여한 동자승 15명은 4월 28일 오후 4시부터 남포동 국제시장 일원에서 '실종아동찾기'를 위한 자비의 탁발'에 참가했다.

동자승들과 유치원 여자 어린이들이 각각 목탁 및 발우, 모금함을 들고 국제시장 일대 상가를 1시간여 동안 돌며 모금했다. 더불어 실종 아동의 사진이 담긴 전단을 배포하는 등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캠페인

도 함께 벌였다. 이번 자비의 탁발 행사에는 동자승 15명 외에도 주지 정원 스님과 유치원 교사 등 약 100여 명이 참가했다.

박지원 기자



내원정사 동자승 15명이 4월 28일 '실종아동찾기'를 위한 자비의 탁발'을 했다.



행진등 경연대회 최우수 사찰로 선정된 한마음선원의 행진등

2009 부산연등축제가 4월 24~26일 3일간 부산 구덕종합운동장, 부산역 광장, 광복동 일원에서 성대하게 열려 봉축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부산'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연등축제는 17일 부산역 광장에서 봉축상징물 점등식을 시작으로 24~25일 양일간 광복동 일원에 봉축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다양한 불교문화 콘텐츠를 만나는 열린 장이었다. 민속놀이, 전통 등 만들기, 연등사진전, 전통 차 나누기, 제2회 B-Boy 경연대회, 불무도 시연 등 어렵게만 느껴지던 불교문화를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계이기도 했다.

26일 오전 11시부터 구덕종합운동장에서 부산연등축제를 본격 개막하고, 어울림 한마당, 봉축연합대법회, 제등행진, 대동화합한마당 등 수만 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야단법석이 펼쳐졌다.

1부 연등문화제는 (사동원이 주관해, 어린이 장기자랑 및 백일장 등을 열고 부산연등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오후 1시부터는 구덕종합운동장 내 육상트랙에서는 비구니스님 화합회의 승·재가 체육대회가 열리고, 잔디구장에서는 전법도양의 108배 정진기도가 동시에 진행됐다. 오후 2시에는 등 경연대회의 각 그룹별 퍼레이드 및 시상식이 이어졌다.

올해의 행진등 경연대회 최우수 사찰은 한마음선원이 선정됐다. 어린이 연등축제 축하공연에는 인기 가수 장윤정, 박현빈 등이 출연해 축제의 열기를 한층 무르익혔다.

오후 5시 봉축연합대법회는 육법공양, 범어사 학인스님의 저녁예불, 발원문 낭독 및 대화사, 봉행사, 법어, 축사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법회가 끝난 후 연등축제의 백미인 제등행진이 부산역 광장까지 이어졌다. 각종 장엄물과 1만여 명이 동참해 연등의 물결을 이뤘다. 부산역 광장에 모든 제등행렬이 집결한 후 대동화합한마당을 끝으로 화려한 막을 내렸다.

한편 올해부터는 정사에서 3여명의 예산을 지원받은 만큼 예년에 비해 규모와 내용면에서 큰 변화·발전이 보였다. 먼저 '봉축 문화의 거리'에서는 젊은 세대에 맞는 불교를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소개해 친숙하게 접근했다. '등 경

부처님과 함께 축제를...

부산 연등축제 "시민의 축제로 승화시켰다" 호평

연대회'는 기존 장엄물을 보유한 대규모 사찰 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찰 및 단체도 제등행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한층 진화한 형



부산구덕불이 연등으로 뒤덮였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범어사 장엄물(왼쪽), 봉축대법회 동자승(원위), 관육을 하는 정어 스님(위), 대동한마당(아래), 제등행진(원아래).



태의 다양한 등을 선보였다. 또한 제등행진의 화향으로 '대동화합 한마당'을 신선히 참여사찰과 불자들의 축제가 아닌 부산시민 모두의 축제로 승화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하루 속히 퇴원하게 하소서"

죽림선원 동의의료원서 음악회

죽림선원(주지 각원)은 4월 26일 오전 10시 동의의료원 7층 대강당에서 봉축법요식을 갖고,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 음악회를 봉행했다.

1부 법요식은 환우들의 헌화 및 헌향, 각원 스님의 봉축법어, 환우들의 폐유를 비는 발원문 낭독, 관불 의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마련된 음악회는 에어로빅, 국악 공연단, 인기 연예인이 출연해 다채

로운 무대를 선보이는 등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도 이날만큼은 가슴에 꽃을 꽂고, 부처님 말씀과 음성공양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각원 스님은 "우리 환자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충만하시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고, 늘 기쁜 일이 함께 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지원 기자

"다문화가정 어린이 교육 등 상호협력"

동명불원·아시아공동체학교·못골성당 자매결연

동명불원(주지 정산)은 아시아공동체학교(이사장 하일민) 및 못골성당(주인신부 조요셉)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다문화가정과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했다.

4월 25일 오전 11시 30분 동명불원 대웅전에서는 아시아공동체학교 하일민 이사장 및 학생과 학부모, 못골성당 조요셉 주임신부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명불원과 아시아공동체학교, 못골성당의 조인식이 열렸다.

이들 세 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복지향상과 문화를 통한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역 문



동명불원이 4월 25일 아시아공동체학교·못골성당과 자매결연 협약을 했다.

화의 실현과 상생, 평화의 길을 상호 도모할 것을 협약했다.

정산 스님은 "동명불원의 범당 부처님은 우리에게 친숙한 중국식, 단상은 일본식, 외부 양식은 남방식 등으로 잘 곳곳에는 창건주故 강석진

화장이 염원했던 세계 불교문화가 공존하는 사찰에의 바램이 깃들어 있다"며 "고인의 뜻을 기려 아시아공동체학교의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단순히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나아가 법회를 열고, 그 속에서 다양한 사회활동과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하일민 이사장은 "동명불원과 못골성당의 도움으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사회의 큰 일꾼으로 성장시킬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감사를 전했다. 박지원 기자

장기기증 활성화하려면?

생명나눔부산 '장기기증 활성화' 심포지엄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사랑의 장기기증은 동본부 부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4월 27일 오후 2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장기기증자 및 등록자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주제발표 및 토론,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다.

주제발표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사랑의장기기증운동 강치영 부울경지역본부

장이 20분간 발표했다. 이어 신익철 변호사가 '민간단체 입장에서의 장기기증활성화 방안'을, 부산일보 김병근 기자가 '장기기증자 예우에 대한 외국사례'를, 동아대병원 윤진환 교수가 '국내 장기이식 실태'를, 김기천 보건위생과장이 '장기기증 정책소개' 등을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장기기증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발 필요성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박지원 기자

사업장의 법구 금강삼고저

2009년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며 문앞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기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습이 달려 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중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능)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미용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 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안, 복원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당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장, 주유소, 신세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전거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악연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천연백수정108 염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 불문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일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 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운전하는 가족친자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다른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미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풀위가 있다. 고급게 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중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리드리며108염주와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카드분할가능)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